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에 따른 유아 정서조절의 차이*

김선희¹⁾

요약

본 연구에서는 개인중심접근을 통해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을 확인하고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만4~6세 유아 170명과 어머니이다.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정서사회화는 정서표현(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정서반응(긍정 정서 수용, 부정 정서 수용)과 정서지도의 하위 요인의 조합에 따라 지지적 개입형, 비지지형과 부정 정서 중심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어머니가 비지지형 혹은 부정 정서 중심형일 때 보다 지지적 개입형일 때 유아의 정서조절 수준이 가장 높았다. 유아의 정서조절 발달 지원 방안으로서,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유아의 긍정 정서 함양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반영한 온라인 콘텐츠의 개발 및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정서사회화 유형, 정서표현, 정서반응, 정서지도, 유아 정서조절

I. 서론

정서조절이란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고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적 각성을 시작, 유지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Thompson, 1994). 정서조절은 유아기에 성취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이며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다. 정서조절 수준이 높은 유아는 유아교육기관 적응(김청·이효림·정정희, 2015)과 또래유능성(박보경·김민주, 2022) 수준이 높은 반면 충동성과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 수준은 낮았다(유다정·한세영, 2022; 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 “이 과정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해 연구되었음”

1)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정서조절의 심리적 기제는 내적·외적 과정을 포함하는데, 내적 과정은 정서 인식, 주의 전환 및 생리적 반응의 조절을 포함하고 외적 과정은 타인의 도움으로 인한 조절, 예를 들어 부모의 양육행동과 같은 외부적 영향을 포함한다(Morris, Silk, Steinberg, et al., 2007). 특히 정서조절 발달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타인과의 정서경험이 중요한데(Fabes, Leonard, Kupanoff, et al., 2001), 이에 다수의 연구자들(강도연·김희태, 2018; 김주련·송하나, 2021; 여은진·이경옥, 2011; Howe & Zimmer-Gembeck, 2022; Morris, Silk, Steinberg, et al., 2007)은 부모의 정서사회화(emotion socialization) 과정에 주목해 왔다.

정서사회화란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포괄하는 것으로 자녀의 정서발달 즉, 정서이해, 정서표현, 정서조절을 촉진하는 다면적인 과정이며(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자녀가 정서를 학습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다(Kochanska, Murray, & Harlan, 2000). 이는 일반적인 양육행동(예: 애정, 통제, 거부, 방임 등)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자녀의 정서를 사회화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부모의 정서적 행동을 의미한다(Morris, Silk, Steinberg, et al., 2007). 유아기는 정서를 이해하고 경험하며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정서사회화 과정에서 어머니는 사회화 대행자로서 주된 역할을 수행한다(이강이·최인숙·성미영, 2007).

부모의 정서사회화 과정은 모델링, 반응, 그리고 지도의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Buhler-Wassmann, Hibel, Fondren, et al., 2021; Denham, Zoller, & Couchoud, 1994; 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즉 부모의 정서표현을 자녀가 관찰하고 이를 모방하는 과정,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통해 자녀가 사회적으로 수용되거나 통제되는 정서표현 규칙을 습득하는 과정,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자녀가 경험한 정서를 가르침의 기회로 삼아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지도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사회화가 이루어진다. 이 3가지 방식은 각각 어머니의 정서표현,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과 정서지도로 평가되는데, 각각은 유아의 정서조절과 관련이 있다.

우선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으로 구분되는데(Halberstadt, Cassidy, Stifter, et al., 1995), 긍정적 정서표현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가족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부정적 정서표현은 가족구성원의 행동이나 가족문제에 대해 비난하거나 화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는 어머니가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관찰하면서, 어떤 정서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학습한다(이강이·최인숙·성미영,

2007).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고 부정적 정서표현을 적게 할수록 자녀의 정서조절 수준은 높다(Eisenberg, Liew, & Pidada, 2001; Haskett, Stelter, Proffit, et al., 2012).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 또한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가 표현하는 정서에 대해 부모는 수용적 반응 혹은 통제적 반응을 보인다(Saarni, 1989). 수용적 반응은 자녀의 정서를 공감하고 감정이입 함으로써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며 통제적 반응은 자녀의 정서를 비난하거나 처벌하고 창피를 주는 등 비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부모의 수용적인 반응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Denham, Zoller, & Couchoud, 1994), 사회적 상황에 적절한 정서표현 규칙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조절력을 향상시킨다(김청·이효림·정정희, 2015; 여은진·이경옥, 2011). 반면 부모의 통제적인 반응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을 학습할 기회를 제한한다(김은경·도현심·김민정 외, 2007; 서혜린·이영, 2008; Berlin & Cassidy, 2003; Lunkenheimer, Shields, & Cortina, 2007).

그리고 정서지도는 부모가 자신과 자녀의 정서를 인식하고, 정서에 대해 자녀와 함께 이야기 나누며,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과정에서 정서를 활용하는 양육방식으로서, 유아의 정서조절 발달을 촉진한다. 부모는 자녀의 정서에 대한 민감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정서적 상황을 학습의 기회로 삼는다(Gottman, Katz, & Hooven, 1996; Hooven, Gottman, & Fainsilber-Katz, 1995; Lagacé-Séguin & Coplan, 2005). 특히 슬픔, 분노,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 상황에서의 정서지도를 강조하는데, 부정적 정서 표현 상황을 가치있게 여기며 자녀와 시간을 공유하면서 친밀감을 나누고 나아가 부정적 정서의 표현과 조절 방법을 지도한다. 이러한 과정은 유아의 정서조절력 향상에 기여한다(Gerhardt, Feng, Wu, et al., 2020; Ornaghi, Pepe, Agliati, et al., 2019; Scott & Hakim-Larson, 2021).

요약하면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표현하고, 자녀의 정서에 대해 수용적인 반응을 보이며, 적절한 개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서지도를 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서사회화 과정은 모델링을 통한 학습,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 그리고 정서지도의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정서사회화 방식은 어머니 개인마다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긍정적 정서표현 수준이 높은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정서에 대한 수용 수준이 반드시 높지 않을 수 있으며, 혹은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정서지도에 적극 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정서사회화의 각 차원이 항상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부모의 정서표현과 정서지도가 관련성이 없거나(Ramsden &

Hubbard, 2002), 긍정적 정서표현이 정서지도와 정적 관련성이 있기도 하다(Baker, Fenning, & Crnic, 2011). 혹은 어머니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표현이 자녀의 정서에 대한 비지지적 반응의 한 유형인 최소화 반응과 관련성이 없거나(강도연·김희태, 2018), 정서표현, 정서반응과 정서지도 모두가 상호간에 정적 관련성이 있음(김아령·왕옥영·김미숙, 2017)을 보고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과정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중심접근을 통해 정서사회화 과정의 3가지 측면이 어머니 개인 내(within individual)에서 어떻게 조합되는지 밝히고, 나아가 어떠한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이 유아의 정서조절 발달에 더 많이 기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중심접근은 연구대상의 이질성을 전제로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밝혀내는 방법이므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

최근 어머니의 정서사회화에 대한 개인중심접근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Howe & Zimmer-Gembeck, 2022; McKee, DiMarzio, Parent, et al., 2022; Miller-Slough, Dunsmore, Zeman, et al., 2018)은 정서사회화의 3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분노, 슬픔, 두려움 등)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문제중심 반응, 정서중심 반응, 표현격려 반응, 처벌 반응, 최소화 반응, 그리고 디스트레스 반응으로 구분하고(Fabes, Eisenberg, & Bernzweig, 1990; Fabes, Poulin, Eisenberg, et al., 2002), 이들 6가지 반응의 조합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을 밝히고 있다. 관련하여 Howe와 Zimmer-Gembeck(2022)는 지도/수용형, 혼합형, 처벌/최소화형, 그리고 낮은 참여형으로, McKee, DiMarzio와 Parent 외(2022)는 정서지도형, 정서무시형, 중간수준형, 그리고 제한된 참여형으로 유형화 한 바 있다.

반면 소수의 연구에서만 정서사회화의 다차원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어머니의 정서사회화를 어머니의 정서표현,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 정서에 대해 자녀와 토론하기, 그리고 정서에 대한 신념의 차원으로 구분한 Buhler-Wassmann, Hibel과 Fondren 외(2021)는 평균 연령 4.39세 자녀를 둔 위기가정(저소득층, 다인종, 아동학대 증재 프로그램 참여 경험)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긍정 정서표현, 자녀의 정서 표현 격려, 토론을 통한 정서지도를 특징으로 하는 참여+지지형, 참여+지지형에 비해 각 하위 차원의 점수가 낮지만 유사한 특징을 가진 참여형, 그리고 참여+지지형과 상반되는 유형으로 높은 부정적 정서표현, 자녀의 정서에 대한 처벌과 최소화 반응, 그리고 정서지도에의 낮은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비참여형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위기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가정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다수의 연구들은 서구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국내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과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다. 국내 연구로는 7~12세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유형화 한 Choi와 Kang(2021)과 김지윤과 오지현(2017)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연구대상이 학령기 아동이고 정서사회화 과정에 관련된 정서표현, 정서반응 및 정서지도의 각 차원을 모두 고려하지 않았고, 더구나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만을 측정하고 있어서 긍정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긍정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또한 자녀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eaux, Lewis, Cas, et al., 2022; Gentzler, Palmer, Yi, et al., 2018). 부모의 긍정 정서에 대한 신념은 정서사회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지나치게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통제력을 상실하게 하여 목표 달성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의 긍정 정서를 수용하거나 격려하지 않는다(Halberstadt, Dunsmore, Bryant, et al., 2013). 이는 자녀로 하여금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한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한다. 최근 몇몇 연구(Breaux, Lewis, Cash, et al., 2022; Lunkenheimer, Hamby, Lobo, et al., 2020; Moran, Root, Vizy, et al., 2019)는 아동의 긍정 정서를 우울성향과 공격성 문제의 중재라는 측면에서 강조점을 두고, 아동의 긍정 정서에 대한 부모의 정서사회화 역할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유아의 부정 정서 뿐 아니라 긍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정서사회화의 한 측면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 일부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에 따른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공격성(Miller-Slough, Dunsmore, Zeman, et al., 2018), 외현화·내재화 행동문제(McKee, DiMarzio, Parent, et al., 2022) 및 코르티솔 분비량(Buhler-Wassmann, Hibel, Fondren, et al., 2021)의 차이를 밝힌 바 있으나, 유아의 정서조절 수준의 차이를 밝힌 연구는 Howe와 Zimmer-Gembeck(2022)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정서사회화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만을 고려하고 있어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정서사회화의 하위 차원을 정서표현(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정서반응(긍정 정서 수용, 부정 정서 수용)과 정서지도로 구분하고, 각 하위 영역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변수중심접근과 달리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과정의 이질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정서사회화 특성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통한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며, 각 유형의 특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에 따라 유아의 정서조절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B광역시 소재 유치원 1개소와 어린이집 8개소에 다니는 만4~6세 유아 170명과 유아의 어머니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170)					
특성	구분	빈도(%)	특성	구분	빈도(%)
유아의 성별	남아	93(54.7%)	유아의 연령	만4세	56(32.9%)
	여아	77(45.3%)		만5세	52(30.6%)
				만6세	62(36.5%)
어머니의 학력	고졸이하	45(26.5%)	가정의 월소득	300만원 미만	25(14.7%)
	전문대 졸업	12(7.1%)		301~400만원	28(16.5%)
	대학교 졸업	97(57.1%)		401~500만원	76(44.7%)
	대학원 수료이상	16(9.4%)		500만원 이상	37(21.8%)
				무응답	4(2.4%)

2. 연구도구

가.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어머니의 정서사회화의 3가지 측면인, 정서표현, 정서반응과 정서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정서표현

어머니의 정서표현 측정을 위해 Halberstadt, Cassidy, Stifter 외(1995)가 개발한

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SEFQ)의 간편형 척도를 이윤정(2014)이 번안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정 내 가족구성원의 정서표현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긍정적 정서표현(예, '다른 사람이 잘한 일에 칭찬한다.')과 부정적 정서표현(예, '다른 사람의 행동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행동을 보인다.')의 2가지 하위영역 각각 12문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보고식 7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7점=매우 그렇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을 더 많이 함을 의미한다.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각각 .90과 .89이었다.

2) 어머니의 정서반응

어머니의 정서반응 측정을 위해 Saarni(1989)의 Parental Attitude toward Child Expressiveness Scale(PACES)을 이윤정(2014)이 번안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상 상황에서 자녀가 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슬픔(2문항), 화(4문항), 걱정(3문항), 두려움(4문항), 혐오감(1문항), 행복(3문항), 호기심(3문항)의 7가지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 혹은 통제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7가지 정서 중에서 긍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행복과 호기심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긍정 정서 수용으로, 부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슬픔, 화, 걱정, 두려움, 혐오감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부정 정서 수용으로 구분하였다. 원척도의 각 문항은 사지선다형이며 채점표에 근거하여 4점 리커트 척도로 변환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긍정 및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통제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각 문항을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긍정 정서 수용과 부정 정서 수용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각각 .66과 .48로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분석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를 지나치게 낮추는 문항을 제거함으로써 문항양호도를 제고하였다. 긍정 정서 수용의 경우 5번 문항(행복)을 제거하였으며, 부정 정서 수용의 경우 2(화), 3(걱정), 8(화), 11(두려움), 12(걱정), 13(화), 14(혐오)번 문항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긍정 정서 수용 5문항(행복 2문항과 호기심 3문항)과 부정 정서 수용 7문항(슬픔 2문항, 화 1문항, 걱정 1문항, 두려움 3문항)으로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각각 .75와 .62였다.

3) 어머니의 정서지도

어머니의 정서지도 측정을 위해 Lagacé-Séguin과 Coplan(2005)의 Maternal Emotional Styles Questionnaire(MESQ)를 이윤정(2014)이 번안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MESQ는 정서지도(emotion coaching)와 정서무시(emotion dismissing)의 2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도(예. 자녀가 슬퍼하면, 자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시간을 갖는다)에 해당하는 7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서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표현하는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적 개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87이었다.

나. 유아의 정서조절

유아의 정서조절 측정을 위해 Shields와 Cicchetti(1997)의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김정민(2013)이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유아의 정서적 유연성, 정서 강도, 사회적으로 적합한 정서표현 및 정서조절 등을 평가한다. 해당 척도는 긍정적 정서조절(예. '자기의 요구가 금방 만족되지 않더라도 기다리며 참을 수 있다.')와 부정적 정서조절(예. '쉽게 화가 폭발하거나 쉽게 짜증을 내는 경향이 있다.')의 2가지 하위영역 각각 9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4점 리커트 척도(1점=거의 그렇지 않다 ~ 4점=매우 그렇다)로서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부정적 정서조절 영역은 역채점한 뒤 긍정적 정서조절 문항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76이었다.

3. 자료수집

B광역시 소재 유치원 1개소와 어린이집 8개소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당 기관의 각 반 담임교사를 통해 만4~6세 유아 300명의 부모에게 조사안내문과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배부하였고, 이 중 210명의 부모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유아 편으로 가정으로 전달하고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40부를 제외한 17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SPSS 23.0과 Mplus 8.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인의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고 연구변인 간의 관련성을 상관계수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하위 요인과 유아의 정서조절 간의 관련성 및 전반적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결과와 평균, 표준편차, 점수범위, 왜도, 그리고 첨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1. 긍정적 정서표현	1					
2. 부정적 정서표현	-.26**	1				
3. 긍정 정서 수용	.34**	-.35**	1			
4. 부정 정서 수용	.09	.07	.01	1		
5. 정서지도	.47**	-.16*	.09	.24**	1	
6. 유아의 정서조절	.44**	-.63**	.30**	.02	.14	1
<i>M</i>	5.43	3.30	2.60	1.70	3.95	3.04
<i>SD</i>	.84	1.06	.55	.25	.55	.33
점수범위	3.42~6.83	1.25~6.25	1.17~3.33	1.21~2.43	2.14~5.00	2.33~3.78
왜도	-.56	.45	-.78	.89	-.15	-.32
첨도	-.46	.30	.17	.73	.17	-.32

* $P < .05$, ** $P < .01$.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하위 요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긍정적 정서표현의 경우 긍정 정서 수용($r=.34, p<.01$)과 정서지도($r=.47,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부정적 정서표현($r=-.26,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표현은 긍정 정서 수용($r=-.35, p<.01$)과 정서지도($r=-.16, p<.05$)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부정 정서 수용은 정서지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24, p<.01$). 그리고 유아의 정서조절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r=.44, p<.01$), 부정적 정서표현($r=-.63, p<.01$)과 긍정 정서 수용($r=.30, p<.01$)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반면 부정 정서 수용과 정서지도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각 연구변인의 점수범위를 고려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표현($M=5.43, SD=.84$), 긍정 정서 수용($M=2.60, SD=.55$), 정서지도($M=3.95, SD=.55$), 그리고 유아의 정서조절($M=3.04, SD=.33$)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부정적 정서표현($M=3.30, SD=1.06$)과 부정 정서 수용($M=1.70, SD=.25$)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각 변인의 왜도의 절대 값(.15~.89)이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 값(.17~.73)이 10을 넘지 않아 데이터 분포의 정규성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2.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하위 요인(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긍정 정서 수용, 부정 정서 수용, 그리고 정서지도)에 따른 정서사회화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최적의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한 뒤, 각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 어머니의 정서사회화의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

어머니의 정서사회화의 최적의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 2개부터 5개까지 증가 시켜가며 모형을 비교하였다.

〈표 3〉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모형 비교

N	AIC	BIC	aBIC	Entropy	LMR	BLRT	Group ratio (%)				
							1	2	3	4	5
1	2420.67	2452.03	2420.36				100				
2	2331.08	2381.25	2330.59	.87	.004	.000	76.3	23.7			
3	2299.13	2368.12	2298.46	.88	.019	.000	72.9	14.4	12.7		

N	AIC	BIC	aBIC	Entropy	LMR	BLRT	Group ratio (%)				
							1	2	3	4	5
4	2218.30	2306.10	2217.44	.96	.046	.000	61.8	18.8	9.4	10.0	
5	2191.05	2297.66	2190.00	.97	.001	.000	18.2	7.6	61.8	2.4	10.0

〈표 3〉에 의하면 정보기준 지수인 AIC, BIC, aBIC값은 잠재프로파일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Entropy 지수 또한 잠재프로파일 수가 증가할수록 1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각 잠재프로파일 모형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LMR의 P-value 또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따라서 5개의 잠재프로파일 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집단 비율이 1%미만이거나 사례수가 25명 미만인 경우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함에 있어 모형의 적합도 지수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Berlin, Williams, & Parra, 2014). 4개와 5개의 잠재프로파일의 경우 집단 비율이 1% 미만인 경우는 없으나 사례수가 25명 미만인 경우가 있어 3개의 잠재프로파일 수를 최종 선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경우 사례수가 170명으로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집단비율이 5% 이상이고 각 집단에 최소 20명 이상이 분류된 3개의 잠재프로파일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1집단=124명(72.9%), 2집단=25명(14.4%), 3집단=21명(12.7%)).

나.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특성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서사회화 하위 요인 각각을 표준화 Z값으로 변환한 뒤 평균과 표준오차를 산출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하위 요인의 평균과 표준오차

	N(%)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긍정 정서 수용	부정 정서 수용	정서지도
		M(SE)	M(SE)	M(SE)	M(SE)	M(SE)
유형 1 지지적 개입형	124(72.9)	.38(.07)	-.31(.08)	.41(.07)	.06(.10)	.26(.09)
유형 2 비지지형	25(14.4)	-1.41(.19)	.26(.15)	-.46(.21)	-.58(.13)	-1.20(.23)
유형 3 부정 정서 중심형	21(12.7)	-.40(.24)	1.32(.20)	-1.82(.20)	.31(.19)	-.1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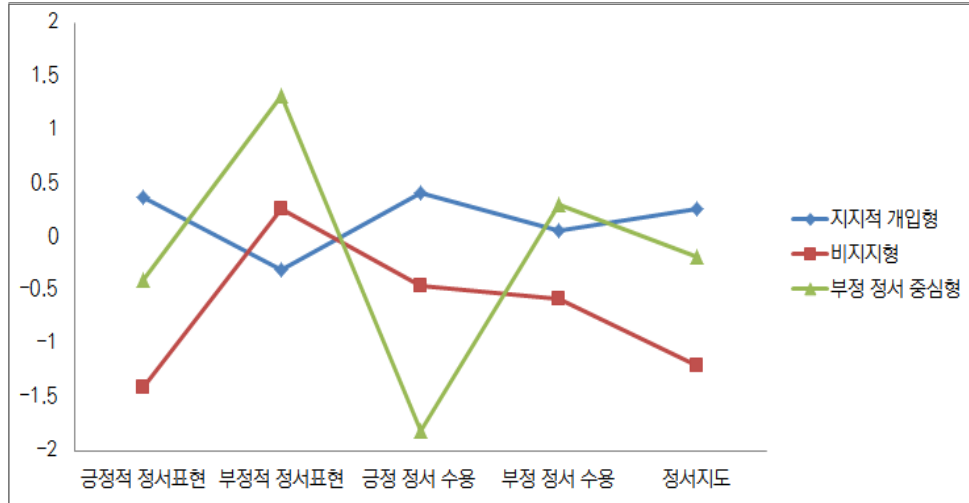
M과 SE 수치는 Z-scores임.

첫째, 잠재프로파일 유형 1에 해당하는 사례는 124명으로 이는 전체 사례수의 72.9%에 해당된다. 긍정적 정서표현, 긍정 정서 수용, 부정 정서 수용과 정서지도 모두 Z 값이 평균보다 높고 $+1SD$ 범위 이내에 있는 반면, 부정적 정서표현은 Z 값이 평균보다 낮고 $-1SD$ 범위 이내에 있다. 특히 긍정적 정서표현, 긍정 정서 수용과 정서지도의 수준은 다른 2가지 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이 유형의 어머니는 부정적 정서표현 보다 긍정적 정서표현을 더 많이 하고 자녀의 긍정 및 부정 정서 모두에 대해 수용적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정서지도를 한다. 따라서 '지지적 개입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잠재프로파일 유형 2에 해당하는 사례는 25명으로 이는 전체 사례수의 14.4%에 해당된다. 긍정 정서 수용과 부정 정서 수용은 Z 값이 평균보다 낮고 $-1SD$ 범위 이내에 있고, 특히 긍정적 정서표현과 정서지도는 $-2SD$ 범위 이내에 있어 다른 2가지 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부정적 정서표현은 Z 값이 평균보다 높고 $+1SD$ 범위 이내에 있다. 즉 이 유형의 어머니는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고 자녀의 정서에 대해 비수용적이며 가장 낮은 수준의 정서지도를 한다. 따라서 '비지지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프로파일 유형 3에 해당하는 사례는 21명으로 이는 전체 사례수의 12.7%에 해당된다. 긍정적 정서표현과 정서지도는 Z 값이 평균보다 낮고 $-1SD$ 범위 이내에 있고, 특히 긍정 정서 수용은 $-2SD$ 가까이 있어 다른 2가지 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비해 부정 정서 수용은 Z 값이 평균보다 높고 $+1SD$ 범위 이내에 있었다. 또한 부정적 정서표현은 Z 값이 평균보다 높고 $+2SD$ 범위 이내에 있어 다른 2가지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이 유형의 어머니는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고, 자녀의 긍정 정서는 수용하지 않는 반면 상반되게 부정 정서는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정서지도 수준도 평균 보다 낮은 편이다. 따라서 '부정 정서 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1]은 어머니의 정서사회화의 하위 요인(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긍정 정서 수용, 부정 정서 수용, 그리고 정서지도)에 따른 3개의 잠재프로파일이 상호 이질적임을 보여준다.



[그림 1]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잠재프로파일 유형

3.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 배치분산분석과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

	유형 1	유형 2	유형 3	F	Scheffé
	지지적 개입형	비지지형	부정 정서 중심형		
	M(SD)	M(SD)	M(SD)		
정서조절	3.13(.27)	2.89(.29)	2.71(.43)	21.63***	1)2, 1)3, 2=3

*** $P < .001$.

<표 5>에 의하면 유아의 정서조절은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1.63$, $p<.001$). 지지적 개입형은 비지지형과 부정 정서 중심형 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의 정서조절을 보였다. 그리고 비지지형과 부정 정서 중심형인 경우 자녀의 정서조절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이 지지적 개입형 일 때 자녀의 정서조절 수준이 가장 높음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 정서사회화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긍정 정서 수용, 부정 정서 수용과 정서지도의 조합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을 알아보고,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에 따른 유아 정서조절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유아의 정서조절 발달을 돕는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정서사회화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긍정적 정서표현, 긍정 정서 수용과 정서지도 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고, 부정적 정서표현 수준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낮으며 부정 정서 수용은 평균 수준인 ‘지지적 개입형’으로 전체 사례수의 72.9%가 여기에 속했다. 두 번째 유형은 긍정적 정서표현과 정서지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낮고 긍정 정서 수용과 부정 정서 수용 또한 평균보다 낮으며, 부정적 정서표현은 평균보다 높은 ‘비지지형’으로 전체 사례수의 14.4%가 여기에 속했다. 세 번째 유형은 부정적 정서표현 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고 부정 정서 수용 수준 또한 평균 보다 높은 반면 긍정 정서 수용 수준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특성을 보였으며, 긍정적 정서표현과 정서지도 수준 또한 평균보다 낮은 ‘부정 정서 중심형’으로 전체 사례수의 12.7%가 여기에 속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방식은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긍정 정서 수용, 부정 정서 수용과 정서지도의 하위 요인에 따라 이질적인 유형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72.9%가 해당되는 ‘지지적 개입형’의 어머니는 가족구성원에게 관심과 애정을 많이 표현하고 자녀가 표현하는 행복감, 호기심, 화, 슬픔, 걱정, 두려움 등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모두를 공감하고 수용할 뿐 아니라 자녀와 정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다양한 정서 상황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정서지도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자녀의 정서에 대한 수용 간의 정적 관련성(김아령·왕옥영·김미숙 2017), 긍정적 정서표현과 정서지도 간의 정적 관련성(Baker, Fenning, & Crnic, 2011), 그리고 자녀의 정서에 대한 수용과 정서지도 간의 정적 관련성(여은진·이경옥, 2011)이 반영된 유형이다.

반면 27.1%가 해당되는 ‘비지지형’ 혹은 ‘부정 정서 중심형’은 부정적인 정서사회화 유형으로서, 비지지형의 어머니는 지지적 개입형과 상반되는 특성을 보인다. 자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에게 화를 자주 내고 비난하는 반면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 부족하며, 자녀의 정서를 무시, 처벌, 비난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자녀의 정서에 대한 이해 및 수용을 전제

로 한 정서지도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정 정서 중심형의 어머니는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에게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를 표현함과 동시에 자녀의 정서 유형에 따라 매우 차별화된 반응을 보이는 유형이다. 즉 화, 슬픔, 두려움 등의 부정 정서에 대해서는 지지적인 반면, 행복감과 호기심과 같은 긍정 정서에 대해서는 매우 통제적인 반응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어머니가 지지적 개입형에 속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표현(긍정, 부정), 상위 정서(정서지도, 정서무시),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반응(표현격려, 정서중심, 문제중심, 처벌, 최소화, 스트레스), 그리고 민감한 지도(정서에 대한 자녀와의 토론)의 11가지 차원을 근거로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을 참여+지지형(44%), 참여형(40%), 그리고 비참여형(16%)으로 구분한 Buhler-Wassmann, Hibell과 Fondren 외(2020)의 연구와 유사하다. 비록 연구대상이 위기 가정의 어머니이지만, 84%가 긍정적인 정서사회화 유형에 속했다. 몇몇 연구(Labella, 2018; McKee, DiMarzio, Parent, et al., 2022)에 의하면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은 달라진다.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지지적인 반응을 주로 보이다가 아동기부터 비지지적 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정서표현과 정서조절력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아동기에 해당하는 7~12세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유형화한 Choi와 Kang(2021)의 연구에서도 확인가능하다. 이 연구는 지지적(19.7%), 억제적(25%), 비효율적(19%), 거친(7.3%), 무시적(28.9%) 반응의 5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는데, 이 중에서 어머니가 지지적인 반응을 보인 비율이 약 20%에 그쳤다. 또한 다수의 어머니들이 때때로 자녀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녀의 건강과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유능한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하는 “충분히 좋은 어머니”(good enough mother)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Choate & Engstrom, 2014). 이로 인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다수가 지지적 참여형에 속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문제중심, 정서중심, 표현격려, 처벌, 최소화, 그리고 디스트레스의 6가지 반응으로 구분한 뒤(Fabes, Eisenberg, & Bernzweig, 1990), 어머니의 정서사회화를 유형화 한 연구들에 의하면, 지도/수용형(30.8%), 혼합형(38.2%), 처벌/최소화형(16.2%), 낮은 참여형(15%)으로 구분되거나(Howe & Zimmer-Gembeck, 2022), 정서지도형(28%), 정서무시형(16%), 중간수준형(31%), 제한된 참여형(25%)으로 구분되었다(McKee, DiMarzio, Parent, et al., 2022). 즉 30% 내외의 부모들은 지지적인 반응(지도/수용형 혹은 정서지도형)을, 약 30~40%의

부모는 평균 수준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을 동시에 보이거나(혼합형 혹은 중간 수준형), 16% 내외의 부모들은 비지지적 반응(차별/최소화 혹은 정서무시형)을 보였으며, 그리고 20% 내외의 부모들은 매우 낮은 반응 수준을 보였다(낮은 참여형 혹은 제한된 참여형). 이들 연구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정서사회화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어렵지만, 차별, 최소화 반응 및 비참여적 반응과 같은 비지지적 반응에 해당하는 비율이 대략 30%를 상회하는 점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부정 정서 중심형’이 확인된 점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자녀의 부정 정서 뿐 아니라 긍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정서사회화 하위 요인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확인된 유형이다. 유아의 부정 정서에 비해 긍정 정서에 대한 정서사회화 과정에 대해 밝혀진 바는 많지 않다. 그러나 어머니는 영아기 부터 자녀의 긍정 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머니는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 정서보다 긍정 정서에 더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어머니의 긍정 정서 표현은 영아의 더 많은 긍정 정서 표현을 이끌어 낸다(Breaux, Lewis, Cash, et al., 2022). 특히 긍정 정서에 대한 정서사회화는 긍정 정서의 함양(cultivation)이라는 측면에서 부정 정서에 대한 정서사회화와는 또 다른 기능을 한다(Lunkenheimer, Hamby, Lobo, et al., 2020). 그러나 부정 정서 중심형의 어머니는 자녀의 긍정 정서에 대한 수용 수준이 매우 낮았다. 기쁨과 같은 긍정 정서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긍정 정서의 함양의 기회와 긍정 정서의 표현과 조절을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Halberstadt, Dunsmore, Bryant, et al., 2013). 따라서 부정 정서 중심형의 어머니는 유아의 긍정 정서에 대한 수용적 반응이 필요한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에 따라 유아의 정서조절 수준이 달랐다. 어머니가 ‘비지지형’이거나 ‘부정 정서 중심형’일 때 보다 ‘지지적 개입형’일 때 자녀의 정서조절 수준이 가장 높았다. 즉 어머니가 가족에 대해 관심과 애정 등의 정서표현을 많이 하고, 자녀의 정서를 공감함으로써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녀와 함께 정서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정서지도에 적극 참여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력이 높아진다. 이는 변수중심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정서조절 간의 관련성(Eisenberg, Liew, & Pidada, 2001; Haskett, Stelter, Proffit, et al., 2012), 자녀의 정서에 대한 수용적 반응과 정서조절 간의 관련성(김은경·도현심·김민정 외, 2007; 김청·이효림·정정희, 2015; 서혜린·이영·2008; 여은진·이경옥, 2011; Berlin & Cassidy, 2003; Lunkenheimer, Shields, & Cortina, 2007)과 정서지도와 정서조절간의 관련성(Gerhardt, Feng, Wu, et al., 2020; Ornaghi, Pepe, Agliati, et al., 2019; Scott & Hakim-Larson, 2021)

을 보고한 연구들과 일치한다.

또한 정서사회화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 수준의 차이를 밝힌 Howe와 Zimmer-Gembeck(2022)에 의하면 지도/수용형, 처벌/최소화형, 혼합형, 그리고 낮은 참여형 중에서 지도/수용형의 정서조절 수준이 가장 높고 처벌/최소화형이 가장 낮았으며 혼합형과 낮은 참여형은 중간 수준이었다. 이때 지도/수용형과 처벌/최소화형 집단 간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유아의 정서조절은 가장 긍정적인 혹은 가장 부정적인 정서사회화 유형에 의해서만 달라짐을 의미한다. 이는 본 연구와 일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정서사회화의 유형인 ‘부정 정서 중심형’과 ‘비지지적 유형’은 유아의 정서조절 수준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부정 정서 중심형의 경우, 긍정 정서 반응 수준이 평균보다 -2SD 정도로 낮은 반면 부정 정서 반응 수준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으로 인해 부적 영향이 상쇄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유아의 정서조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특히 자녀가 표현하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 모두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 그리고 적극적인 정서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어머니의 정서사회화는 ‘지지적 참여형’, ‘비지지형’, 그리고 ‘부정 정서 중심형’의 3가지의 이질적인 유형으로 구분되며, 다수의 어머니가 지지적 참여형에 속했다. 또한 어머니가 지지적 참여형일 때 유아의 정서조절 수준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유아의 정서조절 발달을 위해서는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표현 보다는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고, 자녀의 긍정 및 부정 정서를 수용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정서 상황을 학습 기회로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변수중심접근 달리 집단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개인중심접근에 따라 어머니 정서사회화의 다양성을 확인한 점이다. 유형별 접근은 유아의 정서조절 발달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정서사회화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 정서반응과 정서지도 각각의 측면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을 밝히거나, 일부 개인중심접근의 연구도 학령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유형화 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서사회화의 다차원적 특성을 반영하여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긍정 정서 수용, 부정 정서 수용과 정서지도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을 확인함으로써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사회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과 유아의 정서조절 간의 관련성은 인과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어머니의 양육관련 행동과 유아의 정서발달은 양방향적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Premo & Kiel, 2014). 둘째,

정서사회화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자녀의 긍정 혹은 부정 정서에 대한 수용은 도덕적이거나 관습적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후에는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가치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서사회화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은 자녀의 부정 정서에 대한 반응과 정서지도에 강조점을 두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긍정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정서사회화의 한 측면으로 포함시켰으나, 긍정 정서에 대한 정서사회화 과정과 부정 정서에 대한 정서사회화 과정 간의 차별화된 심리적 기제는 확인하지 못했다. 긍정 정서는 우울, 공격성과 같은 행동문제를 예방하는 심리적 원천으로 인식되므로 긍정 정서의 정서사회화를 통해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는 일련의 과정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서사회화 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과정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모든 변인들이 어머니 보고를 통해 측정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반응 편향의 가능성이 있다. 즉 어머니 본인의 정서사회화와 자녀의 정서조절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측정 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과정을 통해 정서사회화가 정서표현, 정서반응과 정서지도의 3가지 심리적 구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타당한지 경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의 정서발달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과정의 이질성을 전제로 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이 지지적 개입형, 비지지형, 부정 정서 중심형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부정 정서 중심형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긍정 정서 지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정서지도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유아의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조절하는 양육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긍정 정서 경험이 우울과 공격성과 같은 부적응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Lunkenheimer, Hamby, Lobo, et al., 2020; Moran, Root, Vizy, et al., 2019). 따라서 유아의 긍정 정서의 함양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 상황에서는 유아의 정서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해 유아의 일상은 변화하였고 이로 인해 여러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

히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고, 불안,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정서 경험은 연령과 무관하다. 그러나 유아는 정서 문제에 대한 대처에 취약하기 때문에 양육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아이누리포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육아정책연구소 등 유관 기관에서 제작 보급하고 있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는 매우 유용한 온라인 콘텐츠이다. 이러한 공공성을 지닌 콘텐츠는 유아기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면, 다수의 어머니들이 지지적 참여형에 속했으며 정서사회화의 주된 사회화 대행자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0%에 해당하는 비지지형과 부정 정서 중심형 어머니는 자녀의 정서사회화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다수에게 공개되는 온라인 콘텐츠는 접근가능성은 높지만,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어렵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양육자 스스로가 자신의 정서사회화 방식을 인식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부모 자신과 자녀의 정서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정서사회화 과정의 핵심이다 (Gottman, Katz, & Hooven, 1996). 따라서 부모 자신의 긍정 혹은 부정 정서표현 정도, 자녀의 긍정 혹은 부정 정서에 대한 수용정도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온라인 간편형 검사를 제공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로 바로 연결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서사회화 과정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 상황은 정서지도의 계기가 된다(Gerhardt, Feng, Wu, et al., 2020). 즉 유아가 긍정 정서를 경험하든 부정 정서를 경험하든 다양한 정서경험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습득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가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를 가치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모의 인식을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방면의 지원이 제공된다면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역량 강화를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도연·김희태(2018).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유아의 실행기능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3(1), 259-279.
<https://dx.doi.org/10.20437/KOAECE23-1-10>
- 김아령·왕옥영·김미숙(2017). 어머니의 정서사회화가 유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 정서

- 조절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4(3), 197-217.
- 김은경·도현심·김민정·박보경(2007).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 남녀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3), 115-131.
- 김정민(2013). 실행기능과 기질이 유아의 상황에 따른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련·송하나(2021). 외할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 및 사회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4(2), 45-60. <https://doi.org/10.35574/KJDP.2021.6.34.2.45>
- 김지윤·오지현(2017).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유형의 군집에 따른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차이 검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3), 39-54. <https://doi.org/10.14698/jkcce.2017.13.03.039>
- 김청·이효림·정정희(2015).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 *아동교육*, 24(2), 123-144.
- 박보경·김민주(2022). 유아의 수면문제와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3(1), 33-45. <https://doi.org/10.5723/kjcs.2022.43.1.33>
- 서혜린·이영(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정서 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33-56.
- 여은진·이경옥(2011). 남녀 유아의 정서조절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6(6), 25-47.
- 유다정·한세영(2022). 부모공동양육과 유아의 정서 조절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3(2), 95-110. <https://doi.org/10.5723/kjcs.2022.43.2.95>
- 이강이·최인숙·성미영(2007). 부모의 정서사회화와 유아의 정서성 발달의 관계. *아동학회지*, 28(3), 187-199.
- 이윤정(2014).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 의도적 통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ker, J. K., Fenning, R. M., & Crnic, K. A. (2011). Emotion socialization by mothers and fathers: Coherence among behaviors and associations with parent attitude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Social Development*, 20(2), 412-430. <https://doi.org/10.1111/j.1467-9507.2010.00585.x>
- Berlin, L. J., & Cassidy, J. (2003). Mothers' self-reported control of their preschool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A longitudinal study of associations with infant-mother attachment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2(4), 477-495. <https://doi.org/10.1111/1467-9507.00244>

- Berlin, K. S., Williams, N. A., & Parra, G. R. (201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part 1): Overview and cross-sectional latent class and latent profile analys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9*(2), 174-187. <https://doi.org/10.1093/jpepsy/jst084>
- Breaux, R., Lewis, J., Cash, A. R., Shroff, D. M., Burkhouse, K. L., & Kujawa, A. (2022). Parent Emotion Socialization and Positive Emotions in Child and Adolescent Clinical Samples: A Systematic Review and Call to Actio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5*, 204-221. <https://doi.org/10.1007/s10567-022-00388-2>
- Buhler-Wassmann, A. C., Hibel, L. C., Fondren, K., & Valentino, K. (2021). Child diurnal cortisol differs based on profiles of maternal emotion socialization in high risk, low income, and racially diverse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biology, 63*(3), 538-555. <https://doi.org/10.1002/dev.22048>
- Choate, P. W., & Engstrom, S. (2014). The “good enough” parent: Implications for child protection. *Child Care in Practice, 20*(4), 368-382. <https://doi.org/10.1080/13575279.2014.915794>
- Choi, J. Y., & Kang, J. H. (2021). Heterogeneous patterns of maternal emotion socialization and their association with maternal depression and maltreatment history: A person-centered approach. *Child Abuse & Neglect, 122*, 105348. <https://doi.org/10.1016/j.chiabu.2021.105348>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28-936. <https://doi.org/10.1037/0012-1649.30.6.928>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0904_1
- Eisenberg, N., Liew, J., & Pidada, S. U. (2001). The relations of parental emotional expressivity with quality of Indonesia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Emotion, 1*(2), 116-136. <https://doi.org/10.1037/1528-3542.1.2.116>
- Fabes, R. A., Eisenberg, N., & Bernzweig, J. (1990).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Unpublished document available from the first author, Arizona State University, Tempe.
- Fabes, R. A., Leonard, S. A., Kupanoff, K., & Martin, C. L. (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with children's

-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3), 907-920. <https://doi.org/10.1111/1467-8624.00323>
- Fabes, R. A., Poulin, R. E., Eisenberg, N., & Madden-Derdich, D. A. (2002).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Marriage & Family Review*, 34(3-4), 285-310. https://doi.org/10.1300/J002v34n03_05
- Gentzler, A. L., Palmer, C. A., Yi, C. Y., Root, A. E., & Moran, K. M. (2018). Mothers' ideal positive affect predicts their socialization of children's positive affec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79(2), 90-101. <https://doi.org/10.1080/00221325.2018.1434479>
- Gerhardt, M., Feng, X., Wu, Q., Hooper, E. G., Ku, S., & Chan, M. H. (2020). A naturalistic study of parental emotion socialization: Unique contributions of fath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4(2), 204. <https://doi.org/10.1037/fam0000602>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243-268. <https://doi.org/10.1037/0893-3200.10.3.243>
-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ter, C. A., Parke, R. D., & Fox, N. A.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1), 93. <https://doi.org/10.1037/1040-3590.7.1.93>
- Halberstadt, A. G., Dunsmore, J. C., Bryant, A. Jr., Parker, A. E., Beale, K. R., & Thompson, J. A. (2013). Development of the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Emotions Questionnaire. *Psychological Assessment*, 25(4), 1195-1210. <https://doi.org/10.1037/a0033695>
- Haskett, M. E., Stelter, R., Proffit, K., & Nice, R. (2012). Parent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Associations with abused children's school functioning. *Child Abuse & Neglect*, 36(4), 296-307. <https://doi.org/10.1016/j.chiabu.2011.11.008>
- Hooven, C., Gottman, J. & Fainsilber-Katz, L. (1995). Parental meta-emotion structure predicts family and child outcomes. *Cognition and Emotion*, 9, 229-264. <https://doi.org/10.1080/02699939508409010>
- Howe, S. L., & Zimmer-Gembeck, M. J. (2022). Person-Centered Maternal Emotion Socialization and Child Temperament: Relations to Children's

- Emotion Regulation and Anxiety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Advance online publication.
- Kochanska, G., Murray, K. T., & Harlan, E. T. (2000). Effortful control in early childhood: continuity and change,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6*(2), 220-232. <https://doi.org/10.1037/0012-1649.36.2.220>
- Labella, M. H. (2018).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emotion socialization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59*, 1-15. <https://doi.org/10.1016/j.cpr.2017.10.006>
- Lagacé-Séguin, D. G., & Coplan, R. J. (2005). Maternal emotional styles and child social adjustment: Assessment, correlates, outcomes and goodness of fit in early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14*(4), 613-636.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5.00320.x>
- Lunkenheimer, E., Hamby, C. M., Lobo, F. M., Cole, P. M., & Olson, S. L. (2020). The role of dynamic, dyadic parent-child processes in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56*(3), 566-577. <https://doi.org/10.1037/dev0000808>
- Lunkenheimer, E. S., Shields, A. M., & Cortina, K. S. (2007). Parental emotion coaching and dismissing in family interaction. *Social Development, 16*(2), 232-248.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7.00382.x>
- McKee, L. G., DiMarzio, K., Parent, J., Dale, C., Acosta, J., & O'Leary, J. (2022). Profiles of emotion socialization across development and longitudinal associations with youth psychopathology. *Research o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50*(2), 193-210. <https://doi.org/10.1007/s10802-021-00829-6>
- Miller-Slough, R. L., Dunsmore, J. C., Zeman, J. L., Sanders, W. M., & Poon, J. A. (2018). Maternal and paternal reactions to child sadness predict children's psychosocial outcomes: A family-centered approach. *Social Development, 27*, 495-509. <https://doi.org/10.1111/sode.12244>
- Moran K. M., Root A. E., Vizy B. K., Wilson T. K., & Gentzler A. L. (2019). Maternal socialization of children's positive affect regulation: Associations with children's savoring, dampening, and depressive symptoms. *Social Development, 28*, 306-322. <https://doi.org/10.1111/sode.12338>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7.00389.x>

- Ornaghi, V., Pepe, A., Agliati, A., & Grazzani, I. (2019). The contribution of emotion knowledge, language ability, and maternal emotion socialization style to explaining toddlers'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28(3), 581-598. <https://doi.org/10.1111/sode.12351>
- Premo, J. E., & Kiel, E. J. (2014). The effect of toddler emotion regulation on maternal emotion socialization: Moderation by toddler gender. *Emotion*, 14(4), 782-793. <https://doi.org/10.1037/a0036684>
- Ramsden, S. R., & Hubbard, J. A. (2002). Family expressiveness and parental emotion coaching: Their role i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6), 657-667. <https://doi.org/10.1023/A:1020819915881>
- Saarni, C. (1989).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arent Attitude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PACES). ERIC ED 317301.
- Scott, S. A., & Hakim-Larson, J. (2021). Temperament,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Related Parenting: Maternal Emotion Socialization during Early Childhood.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30(10), 2353-2366. <https://doi.org/10.1007/s10826-021-02016-z>
-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906-916. <https://doi.org/10.1037/0012-1649.33.6.906>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5-52. <https://doi.org/10.2307/1166137>

- 논문접수 8월 4일 / 수정본 접수 8월 31일 / 게재 승인 9월 14일
- 교신저자: 김선희,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kremedy@pusan.ac.kr.

Abstract

Differences in Young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by Patterns of Maternal Emotion Socialization

Kim, Sunhee

This study examined patterns of maternal emotion socialization and differences in young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based on maternal emotion socialization using a person-centered approach. The sample included 170 children aged 4-6 and their mothers. Data were analyzed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LP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ree distinct profiles were identified (supportive involvement, unsupportive, and negative emotion-centered).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young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by three distinct latent profiles. Mothers who were on supportive involvement profiles had children with higher levels of emotion regulation compared to mothers who were on unsupportive and negative emotion-centered profile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level of emotion regulation between the unsupportive and negative emotion-centered profiles.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to facilitate young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grounded by three distinct latent profiles for maternal emotion socialization.

Keywords: patterns of emotion socialization, emotion expressivity, emotion response, emotion coaching, young children's emotion regulation